



“좀 쉬었다 허잔께”



눈을 뜯듯 갑은 듯 계슴츠레 앓아 있던 아주머니, 고개가 떽~ 떨어집니다.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가도 이내

구벅구벅 ‘인사’를 합니다. 잠을 주체하

기 힘들었는지 결국 한 쪽 팔을 턱에 꿈

니다.

8일 광주시 동구 구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제 88회 전국체전 성공기원 시민 한마당’ 행사를 돌아다니다 ‘단 잠’을 자는 아주머니를 보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열리는 광주 척식고싸움 놀이를 위해 행사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몇 차례 연습이 끝난 뒤 잠시 쉬는 시간, 의자에 앉았는데 갑자기 졸음이 쏟

아진 것입니다. 힘든 고싸움 놀이, 연습 하느라 피곤한 몸에 오후 식곤증까지 겹치면서 의자에 앓아 마자 눈꺼풀이 무거워졌을 겁니다.

그래도 ‘힘들다’ 한마디 하지 않고 연습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들리면 자리에서 일어나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이번 전국 체전에 광주를 찾는 선수단·임원 등은 줄줄이 2만5천여명. 몰려드는 관광객들만 10만여명이 넘을 것으로 하더군요.

그만큼 광주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기억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불가리도 많고 천절하다는 인상을 심어줘야 또 올 것 아니겠습니까.

/위저링기자 jrwi@



■ 사연

시체실에 3명의 시신이 들어왔다. 모두 웃는 얼굴이다. 검시관이 경찰에게 물었다. “아니 모두 웃고 있는 겁니까?” “첫번째 시신은 일의원짜리 복권에 당첨되어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입니다.” “두번째 시신도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자기 자신이 일등했다고 충격 받았습니다”라고 말했다. 검시관은 나머지 한 사람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럼 이 세번째 사람은?” 경찰이 말했다.

“이 사람은 벼락을 맞았습니다” “벼락을 맞았는데 왜 웃고 있어요?” “번쩍거리길래 자기 사진 찍는 줄 알고 웃었답니다”

■ 초등학생의 관찰 일기

풀숲에 작은 사마귀가 큰 사마귀 위에 앓아 있는 것을 본 달봉이, 엄마 사마귀가 아기 사마귀를 등에 업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작은 사마귀가 몇 차례 꿈틀거리고 나자 큰 사마귀가 작은 사마귀를 잡아 먹는 것이다. 달봉이는 생각했다. “엄마 사마귀는 아기가 보채면 잡아 먹는다”

관찰 일기를 본 선생님이 그것은 엄마와 아기가

아니나 암컷과 수컷인데, 교미를 마친 암컷은 배속의 알을 기르기 위한 영양 보충으로 수컷을 잡아 먹는다고 했다. 그런 일들은 종족 보존을 위한 본능이라고 했다.

집에 돌아온 달봉이, 퇴근한 아빠를 흘겨 보면서

자꾸 피하는 것 아닌가!

평소와 다른 행동에 이상함을 느낀 엄마, “달봉아, 너 왜 자꾸 아빠를 흘겨보고 그래” “진짜 아빠 아니잖아, 진짜 아빠는 엄마가 나 배었을 때 잡아 먹었잖아!”

■ 별걸 다 도와주고 싶은 사오정

선생님이 어른이 되면 뭘 하고 싶은지 물었다. 철수가 일어서서 말했다.

“저는 우주선 조종사가 되고 싶어요!”

다음은 영희가 일어나서 말했다.

“저는 엄마가 되어 예쁜 아기를 낳고 싶어요!”

다음은 사오정이 별떡 일어났다.

“저는 영희가 예쁜 아기를 낳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 남자는 평생 다섯 번 변한다.

▲ 여자가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초반기 : “내가 지금 밥 걸려온 참이었는데….”

-진행기 : “지금 어디야? 우리 만나자.”

-과도기 : “내가 나중에 다시 걸면 안될까?”

-관태기 : “넌 꼭 사람 비싸울 때 전화질이냐?”

-말년기 : 전화기가 깨져있어 음성 사서함으로….”

▲ 여자가 약속 장소에 삼십분 늦게 나왔을 때.

-초반기 : “미안하긴 ~ 하나니두 안 지루했어”

-진행기 : “늦은 봄여 여기다 뾰뽀해”

-과도기 : “너 지금 웃음이 나오니”

-관태기 : “누구는 시간이 썩어 남는 줄 아냐?”

-말년기 : 남자가 이미 가버리고 없다.

▲ 남자가 자기 친구들에게 여자 소개할 때.

-초반기 : 내 애인이야.”

-진행기 : 우리 곧 결혼할지도 몰라.”

-과도기 : 그냥 만나는 애야.”

-관태기 : 애한테 직접 물어봐라.”

-말년기 : 어, 너 아직 두 안 갔나?”

▲ 데이트 끝나고 여자를 집에 보내 줄 때.

-초반기 : 기사 아저씨! 얘네 집 앞까지 잘 부탁드려요.”

-진행기 : 이제 들어가, 대문 아까 열렸잖아.”

-과도기 : 너 집까지 혼자 갈 수 있지?”

-관태기 : 가라. 난 건너서 탄다.”

-말년기 : 택시 ~ 운암동!”

■ 차고 문이 열렸네요

사장님 차고가 열린 것을 본 황당한 비서가 말했다.

“사장님~ 차고 문이 열려 있네요.”

무슨 말인지 알아채지 못하던 사장이 비서가 손으로 가르키자

당황해 열린 차고문을 올리며 말했다.

“내 에쿠스는 못 봤겠지?”

비서 : “못 봤어요 사장님! 바퀴 두개가 평크난 조그만 티코만 보이던데요”



84. 세계 각국 디자인의 과거와 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국제적 행사가 5일 광주에서 개막돼 3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빛 LIGHT’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디자이너들의 실험 정신을 담은 2천7 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무엇일까요?

①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② 전주세계소리축제

③ 부산국제영화제 ④ 대구 애니메이션 축제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 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9일(음 8월 29일丙子)

子 36년생 가정이 소란하니 조용히 해결하라. 48년생 겉으로는 삶이 하나 속으로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 60년생 자신과 직장 사이에 불행이 발생할 수도 있다. 68년생 자동차를 매번 저여서 사탕이 보인다. 84년생 자동차를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19, 29

丑 37년생 연인과 접속이 될 수 있으니 준비하라. 49년생 새로운 일에 생기고 협조자가 달려온다. 61년생 우무머리가 들어니 선택을 잘하라. 79년생 의외의 혜택과 친안의 일정이 있다. 85년생 새로운 연인을 만날 기회니 준비하라. 행운의 숫자: 07, 40

寅 38년생 자녀와 떨어져 살아야 할 경우가 생기지만 좋은 일이다. 50년생 오늘 하루는 외근보다는 내근을 하라. 62년생 경쟁하던 일에 순조롭게 주변의 도움을 받는다. 74년생 눈을 조급한 낮춰서 현실을 보라. 행운의 숫자: 15, 36

卯 39년생 호수에 배를 띠우나 행운은 반된다. 51년생 과로한 부자만 없으면 결과는 솔솔 하리라. 75년생 오랫동안 기다리던消消息이 온다. 행운의 숫자: 09, 38

辰 40년생 강물이 순종하니 편안한 하루다. 52년생 직장에서 신경하게 처리하고 가정에서 화목 하라. 64년생 특별한 제방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다. 76년생 자신을 낮춰라. 행운의 숫자: 22, 35

巳 41년생 협력을 만나서 도움을 받는다. 53년생 근처에 사는 사람은 오래가지 않거나 선박을 살았다. 68년생 이웃을 살펴보라. 77년생 여성 보다 친구 만나기 좋은 날이다. 행운의 숫자: 02, 26

午 42년생 육신을 내지 마라 좋은 날이다. 54년생 여러 가지 고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 분수를 지켜라. 66년생 어려움은 없으나 친인척의 변동으로 걱정이 생긴다. 78년생 뜻밖의 학점이 온다. 행운의 숫자: 10, 27

未 43년생 가정과 마음의 중증화 고통이 있을 수 있다. 55년생 주변의 기반과 협력된 문서를 조심하면 대손은 없다. 67년생 부부간의 이해에 달려있다. 80년생 내려온다. 88년생 부모는 조급한 노력하면 해결되리라. 행운의 숫자: 04, 45

申 44년생 믿는 도끼도 세심하게 살펴보라. 56년생 합자 동업 신규 투자는 深思熟考후 결정하라. 68년생 건강이 수상하니 겸진을 받아보라. 80년생 친구가 다시 도와주고 새 문서를 잘고 가내는 경사로다. 행운의 숫자: 08, 33

酉 45년생 겉으로만 어려움 뿐 행동하면 쉬우리라. 57년생 사람은 있으나 만날 수 없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69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고 내실 있게 드리란다. 81년생 같은 회려하나 속내는虛니 길숙 있게 처리하라. 행운의 숫자: 05, 25

戌 46년생 옛 일에 괴로우니 다시 한번 살펴보라. 58년생 지출을 가장하고 의논하라. 70년생 처음에는 당황하나 흥미로운 변화는 행운이다. 82년생 혼인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으니 현실로 돌아오라. 행운의 숫자: 13, 26

亥 47년생 미움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 사양하라. 59년생 해물은 일은 멀지처럼 날리고 허락하며 지내라. 71년생 디스크로 미움을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신경하고 또 신중하라. 83년생 집안의 평화는 잊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06, 37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틱 뱃드

제품구입문의: (주)효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1007>

How often do you play golf?

얼마나 자주 골프 치러 갑니까?

A : How often do you play golf?

B : I play every weekend.

A : Do you have your own clubs?

B : Yes, I do. What sports do you enjoy?

A : I love to go sailing.

B : How often do you go?

A : I only go once a month.

A : 얼마나 자주 골프를 치나요?

B : 매주 합니다.

A : 당신은 골프채를 가지고 있나요?

B : 예, 당신은 어떤 스포츠를 즐기십니까?

A : 요트 타는 것을 좋아해요.

B : 얼마나 자주 가나요?

A : 한 달에 한번 갑니다.

* I have a new set of clubs.

=저는 새 골프채 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 Were they expensive? =그것들은 비쌉니까?

오하요우 니혼고 <1007>

お勘定(かんじょう)お願(ねが)いします。

계산 좀 부탁해요.

A : お勘定(かんじょう)お願(ねが)いします。

B :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一万(まん)円(えん)です。

A : カードでもいいですか。

B : いい